

2011 새해에는

3 임충식 광주·전남중기청장

“친환경 녹색산업에 적극 투자”

“언제까지 열악한 인프라 탓만 할 겁니까. 예전과 달리 이제 운다고 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 요인은 뭔지 등에 주목하고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임충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11일 청장실에서 “광주·전남은 열악한 인프라 탓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한 21세기 친환경·녹색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올해 지역 특화 사업으로 ‘전남 천일염의 세계 명품화’를 제시했다.

전남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업체 수도 전국의 91%에 달하는 천일염 주산지다. 세계에서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가공·마케팅 등의 과학적 데이터가 없어 그 가치가 저평가돼 kg당 15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생산방법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가공을 고급화하면 kg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부가가치가 270배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목포시·신안군·영광군 등 지자체와 목포대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전남 천일염을 연구해 생산 및 기술개발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게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동네상권·소상공인 위한

나들가게 사업 더욱 확대

중소기업 정책도 이같이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경영자금 지원보다는 잠재력·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핵심기술 개발에 지원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 불황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은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5607억원)보다 12% 늘어난 6288억원을 책정했다. R&D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글로벌 기업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임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대기업 그늘(협력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개발은 ‘납품단가 연동제’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만 강조하다 보면 대기업은 납품단이 저렴한 중국·동남아 등으로 납품업체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그는 “새해 화두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며 “대기업이 자사 이익만 내세우지 말고 협력사와 같이 성장했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동네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나들가게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217개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이 중 86.4%가 매출이 증가했다”며 “나들가게 점포를 확대하고 상권분석을 토대로 일반수퍼형·편의점형·그린마트형 등 유형별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영광 출생으로 광주고와 한국의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APEC 중소기업분야 코디네이터,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설 차례상 비용 18만5100원

물가협회, 광주 양동시장 29개 품목 조사 ... 지난해보다 18.8% 올라

광주지역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8.8% 오른 18만51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파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고 설이 가까워질수록 농수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설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사)한국물가협회가 광주 양동시장에서 주요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18만5100원으로 작년보다 2만9320원(18.8%)이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전제조사 품목 중 무, 파 등 채소류를 포함해 14개 품목 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수입조기(부세) 등 7개 품목만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파와 폭설 피해로 출하량이 줄어드면서 채소 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과(1kg)는 지난해 1350원에서 2000원으로 48.1% 올랐고, 무(1개) 값도 800원에서 1500원으로 87.5%나 폭등했다.

견과류는 지난해 개화기의 저온현상과 잦은 비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꽃감(5개)은 93.5%나 올라 6000원에, 대추(400g)도 전년대비 15.5% 오른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축

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돼지고기(등심·1등급·500g)가 작년보다 50% 오른 6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닭고기(육계·3kg)도 1만7400원으로 1년 사이 16%가 올랐다.

한편 광주지역 차례비용은 서울영등포시장(17만58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저렴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19만8450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재래시장 9곳의 평균 차례비용은 19만1500원으로 전년대비 15.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이상기온으로 청과류 작황이 부진한데다 농수산물의 산지 출하량이 줄어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구제역과 같은 악재가 겹쳐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은행·광주신세계 업무 협약

11일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과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조창현)가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16층 시상식장에서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과 광주신세계는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상호이익 증대를 꾀하는 한편 지역 은행과 현직법인으로서는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설 배송전쟁 돌입

택배업계, 차량 추가 투입

택배업계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선물 배송체제에 돌입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2월3일)과 관련된 택배물량이 작년 설 때보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배업계 가운데 현대로지엠이 가장 빨리 특별수송체제를 갖췄다. 현대로지엠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을 설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2000여 대의 택배차량을 전국 현장에 추가 투입했다. 대한통운은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CJ GLS는 17일부터 29일까지를 설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차량확보와 인원충원에 들어갔다. 한진도 17일부터 31일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연합뉴스

‘神의 직장’ 한국은행도 외부평가 받는다

임직원 급여·복지 수준 등 공정성 측정

한국은행이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 수준에 대해 외부 평가를 받기로 했다.

한은은 11일 국내외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5000만원을 들여 ‘공정사회 관련 외부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제목의 외부 용역을 이달 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채용, 계약, 인허가, 외부 대상자 선정 관련 사항 ▲급

여 및 복리후생 부문 ▲예산 수립 및 집행 부문 ▲한은에 대해 외부에서 기대하는 사항 등이다.

한은은 용역을 통해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표로 만들고, 이 지표에 따라 현재의 예산 집행이나 급여 수준 등이 대내외적으로 공정한지를 따져 불공정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총액한도대출 배정 등 통화정책에 관한 사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 항목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임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에 대한 공정성 측정 결과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은은 금융위기를 맞아 임금을 2년간 동결하고 지난해는 5%(신규 직원 20%) 삭감했다. 그럼에도 정년 보장, 급여 수준, 유학 등 복지 혜택이 자주 거론돼 세간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카드 승인 실적 400조 육박

지난해 389조원 ... 전년보다 17% 증가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국내 카드 승인실적이 389조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해외 신용판매, 기업구매카드 실적, 승인취소 실적을 제외한 순수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이다. 체크카드, 선불카드 실적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실적은 37조3000

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 증가했다. 협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명목 사용액이 증가하고 부가서비스 혜택 등으로 카드 결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9월 민간 소비지출 중 카드 결제 비중은 56.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커졌다.

/연합뉴스

물가 모범업소에 부가세 신고 면제

상수도료 20~30% 감면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인 인상 억제에 위해 올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할 전망이다.

물가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 20~30% 감면과 쓰레기봉투도 무료로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해당 업소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반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업소는 지자체와 세무서 등으로부터 강력한 단속 및 징계를 받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물단지
전남 주택 ‘석면공포’

7만곳 열세·교실 18곳 중 9곳도 건강 위협

공정 직영

공정 직거래

주택 개·보수

인테리어

APT,주택 리모델링

협력업체 및
영업사원 구함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릅니다.

색상별 칼라강판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단 하루면 시공완료

주택, 지붕, 창고
공장, 헬스, 닥트

본사 및 공장주소
광주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 062-373-6548 · 6549
010-8608-6548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건강기능식품

Essential Multi Vitamin & Mineral for Men

다량 미네랄

162g(900mg×180정)

건강기능식품

Essential Multi Vitamin & Mineral for Women

다량 미네랄

162g(900mg×180정)

건강기능식품

Omega-3 DHA&EPA

오메가-3DHA&EPA

500mg×400캡슐(200g)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

Vitamin House